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교회생활의 실행에서 가져야 할 중대한 체험들

(1)

우리의 혼이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지며
그리스도께서 혼의 감금에서부터 해방되심

성경: 엡 3:8-11, 16-21, 골 3:11, 살전 5:23, 고후 4:16, 히 4:12

I. 교회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단체적인 방식으로 실재화하고 체험하고 표현한 그리스도이다 — 엡 3:16-21.

- A.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목적으로 교회를 계획하셨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 엡 3:9-11, 21.
- B. 교회생활은 다름 아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우리를 통해 표현되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 엡 3:8, 21.
- C. 우리가 이러한 교회생활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만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생활의 본질과 실질이다 — 골 1:12, 2:9-10, 16-17, 3:4, 10-11, 4:15-16.

II.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반드시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한다 — 살전 5:23, 엡 3:17상, 갈 4:19, 고전 15:45하, 고후 3:17.

- A. 한 면에서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입지가 확장되는 것이며, 또 다른 면에서 생명의 성장은 우리 혼의 각 부분이 모두 굴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 살전 5:23.
 - 1. 우리의 혼이 더 많이 굴복될수록 생명이 더 많이 자라며, 우리의 혼이 더 많이 감소될수록 생명이 더 많이 증가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2. 사람의 혼에는 특별히 강하고 두드러진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그 부분을 의지해서 생활한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마주치면 그 부분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처리한다 — 고전 2:14.
 - 3. 우리가 십자가의 처리를 충분히 받은 후에는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이 굴복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굴복되고, 더 이상 이전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 — 비교 딤후 1:7.
 - 4. 아가(雅歌)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주님을 사랑하게 된 후에, 한 가지 유일한 공과, 곧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공과를 배워야 함을 계시해 준다 — 아 1:9-11.
 - a. 우리의 의지가 더 많이 굴복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될 것이다 — 아 4:1, 4, 고후 3:18, 롬 12:2.
 - b. 우리는 사람의 의지가 그의 참된 자아, 곧 그 사람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지는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 약 4:13-15, 고전 4:19, 행 18:21.

- c.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더하여,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것이 그분의 구원이 이룬 가장 위대한 일이다 — 빌 2:12-13.
 - d.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 되는 것에 좌우된다 — 마 7:21, 12:50, 롬 12:2, 골 1:9, 4:12.
- B.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부분들 안에 사시고 이 부분들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갈 2:20, 4:19, 엡 3:16-17상.
1.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 곧 우리의 혼의 부분들은 신성한 실재로 조성되어야 한다 — 시 51:6.
 - a. 신성한 실재는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 아버지와 아들과 영 — 이다 — 요 14:6, 16:13, 요일 5:6.
 - b. 실재의 영은 우리를 모든 실재 —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 아들께서 소유하신 것, 그 영께서 아들에게서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에서 받으신 것 — 안으로 이끄신다 — 요 16:13.
 - c. 실재의 영께서 신성한 실재를 우리 안에 전달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때, 신성한 실재 —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 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된다 — 요일 4:13-14, 5:6.
 - d. 신성한 실재는 우리의 실재와 생명과 생활이 되어야 하며, 이 실재는 모든 일에서, 모든 방식에서 우리 전 존재에 적용되어,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우리의 실재가 되어야 한다 — 요삼 3, 요 4:23-24.
 2.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 잠 20:27.
 - a.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이며,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비추는 빛은 하나님 자신이다 — 요 3:6, 요일 1:5.
 - b. 기쁨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심지’인 우리의 거듭난 영을 적시시고(우리의 영과 연합되시고 — 비교 롬 8:16) 우리의 영과 함께 ‘불타실’ 때(12:11), 신성한 빛이 우리의 내적 부분들을 비춘다.
 - c. 그 영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동기와 의도를 비추심으로 우리의 모든 내적 부분들을 환하게 밝히시길 원하신다.
 - d. 우리가 주님께 열려 있는 그릇으로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 연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신성한 빛의 비춤을 체험할 것이다 — 고후 4:6-7.

III.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영이 해방되도록 겉사람의 파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의 감금으로부터 해방되셔야 한다 — 고후 1:9, 4:16, 히 4:12.

- A. 우리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고전 6:17, 딤후 4:22),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는 그분을 위한 공간이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1.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위한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감옥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에 의해 감금되어 계신다.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 혼의 모든 내적인 부분을 점유하고 계시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3.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골 1:27), 우리의 혼은 너무나 강하고 천연적이며 땅에 속하고 인간적이다. 그러므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 그리스도를 감금한다.

4. 교회생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성도들로부터 나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감금된 상태로 계신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가질 수 없다 — 엡 3:16-17, 21.
- B. 우리는 모두 영을 해방하기 위해 걸사람의 파쇄를 체험해야 한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실 수 있다 — 히 4:12.
1. 파쇄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 안에 본래부터 있던 것을 제거하여,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다.
 2. 우리가 파쇄된 정도가 곧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정도이다 — 빌 2:12-13.
 3.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것은 무엇이든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 죽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일단 그것이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일단 그것이 부활하면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고후 1:8-9, 빌 3:10-11.
 4. 우리가 파쇄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영은 더 많이 해방될 것이다. 어떤 일에서든 우리가 파쇄를 체험한다면, 그 일에서 우리의 영은 해방될 것이다 — 고후 4:16, 히 4:12.
- C. 우리의 혼이 굴복되고 파쇄될 때, 그리스도는 표현되실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표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 — 엡 3:21, 4:3-6, 요 17:22.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함

생명이나 인격이 없는 어떤 물체를 어떤 향기로 적셔서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은 아주 쉽다. 붉은 잉크병 안으로 솜뭉치를 넣으면 솜뭉치는 곧 붉은 잉크로 적셔질 것이다. 이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산 인격인 당신을 붉은 잉크 안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확실히 당신은 그것에 저항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려고 시도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추구하는 이의 감정을 만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1:2, 4). 주님께서 그녀의 감정을 만지자, 그녀는 비록 준마와 같이 강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녀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오고, 주님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었다. 그녀의 지각과 관념이 바뀌었다. 먼저 주님은 그녀의 감정을 만지셨고, 그런 다음 그녀의 생각을 새롭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녀의 감정은 만져졌고 그녀의 생각은 변화되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그녀의 의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의지는 길르앗 산기슭에서 풀을 먹는 무리 염소처럼 땅은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의해 그녀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는 것이다. 그 후 부활 안에서 그녀의 의지는 하나님을 위한 병기고인 다윗의 망대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그 사람 안에 일해 넣으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단지 가르침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분과 달콤한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다. 교통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이 우리를 적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셔질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굴복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 드릴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붉은 잉크’ 속으로 집어넣으실 것이고, 우리는 적셔지고 향기를 낼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성격과 개성과 의지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적셔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인격으로서 그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준마는 굉장히 강한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마는 어떤 인격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신에 속한 어떤 인격도 갖고 있지 않다. 가마의 인격은 단지 가마가 모시고 있는 산 인격이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은 그런 정도에 이르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읽은 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관념은 더욱 변화될 것이다. 전에는 영화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전혀 사로잡지 못한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변했다. 우리의 관념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바뀌었다. 예수님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었다.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욱 바뀔 것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데로 전진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취하면 취할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욱 우리를 적시는 요소가 되실 것이다. 그분 안에 몰약과 유향과 바위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그분의 인격 안에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져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완고한 의지를 굴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취할수록 그분은 더욱 우리를 적시실 것이며 결국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녀의 머리털을 ‘길르앗 산기슭에 누워 있는’ 염소 무리로 평가하셨다. 길르앗은 염소 떼를 먹이는 곳이다. “주의 백성 ...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미 7:14).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렘 50:19). 주님을 먹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산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바로 그 요소를 내 안으로 취합니다. 나는 산 말씀이신 당신을 먹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 존재를 적시실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굴복될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만져지고,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의지는 굴복될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완전한 자유를 갖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준마가 아니라 가마와 면류관일 것이다. 어떤 이가 우리에게 관하여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우리가 단순히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넣어졌고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넣어지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그분과 완전히 하나이다.

(아가서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아가서 강해), 125-129쪽)

그리스도를 혼의 감금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림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에서 어떤 입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장소나 방이나 입지가 조금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께 거처가 아니라 감옥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에 의해 갇혀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을 때, 생각을 사용하여 회개하였다. 우리는 생각을 돌이켰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들을 자백했다. 믿는 것과 더불어 항상 자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양심은 열리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분은 우리 안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생각과 양심을 닫아 버린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영 안에 가두어 둔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완고한 의지와 자아로 주 예수님을 감금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감금되어 계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몸의 이상을 계시한 후에,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이 강하게 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모든 속 부분을 점유하시고 그 안에 자리 잡으신다는 뜻이다.

최근 수년간 미국과 극동에서 형제자매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건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관찰하고 인상 받은 것에 대해 슬픔을 느낀다. 혼이 파쇄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생활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니 형제님은 심지어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 영의 해방을 위해 걸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걸사람, 곧 혼적인 사람은 속사람, 곧 영이 해방되도록 파쇄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니 형제님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초 과정’일 뿐이다. 니 형제님이 이 메시지들을 전한 후 이십오 년 이상이 지나갔다. 초기 시절 내가 형제님을 만난 후 첫 몇 해 동안, 형제님은 항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방면들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형제님은 오랫동안 시련을 겪게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형제님의 메시지들은 거의 항상 걸사람의 파쇄를 강조하였다.

니 형제님은 전쟁 후 공개적으로 다시 사역하기 전에 소수의 몇몇 형제들과 교통할 기회를 몇 번 가졌다. 긴 시간 동안의 교통 가운데서 형제님은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하였다. 나나 다른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형제님은 항상 한 가지 방식으로 답변하였다. 그것은 곧 걸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는 걸사람, 곧 혼이 파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온다. 혼이 너무 강하다. 생각은 타고난 그대로이고, 감정은 너무 세상적이며, 의지는 너무 인간적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혼의 모든 내적 부분을 점유하지 못하실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너

무 강하고, 타고난 그대로이며, 땅에 속하고, 인간적이다. 그러므로 결국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우리는 우리의 혼에 의해 그리스도를 감금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갇혀 계신다. 교회생활은 모든 성도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실재화하고 표현하며 체험하는 생활이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와 우리를 함께 연합시키신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혼 생명에 의해 갇혀 계시고 내 안에 혼 생명에 의해 갇혀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의 혼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의해 표현되실 수 없고 실재가 되실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의 혼은 강하고, 어떤 사람의 혼은 훨씬 더 강하다. 어떤 사람은 그의 생각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물론 우리는 형제들이고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지체 위에 혼적인 '왁스'가 한 겹 칠해져 있다. 이 혼적인 '왁스'는 매우 강하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너무 강하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안에서부터 확산되시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실 것이다. 그럴 때 혼은 굴복되고 파쇄될 것이며, 혼의 모든 부분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표현되실 것이고, 이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 실행 건축, 123-127쪽)*

파쇄를 받아들이는 길

파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세 방면 혹은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주님의 빛 비춤이고, 둘째는 사람의 받아들임 혹은 사람의 집행이고, 셋째는 환경의 협력이다. 파쇄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여기 유리컵이 있는데 원래는 완전했으나 지금 그것이 깨졌다면 그것이 바로 파쇄이다. 이것에 대해 당신은 모두 분명할 것이다. 당신의 타고난 생명은 완전하고, 당신의 성질도 완전하며, 당신의 성격과 육체도 완전하다. 그런 당신이 지금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당신의 영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있다.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가?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성질과 기질이다.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속한 완전한 그 모든 것은 파쇄될 필요가 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파쇄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먼저 당신 속을 비추어, 당신의 타고난 생명과 육체, 당신의 성질과 기질이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적하고 방해하며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에게 그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여 주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빛을 본 후 즉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일상생활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이 빛을 집행하신다. 이 빛을 보기 전에 당신은 화를 내고 육체를 드러내도 별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빛을 본 후에,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당신과 함께 이 빛을 집행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당신의 타고난 생명과 성질이 나올 때 성령은 당신에게 책망하는 느낌을 주실 것이고, 이러한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자아와 성질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 후 당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책망하고 십자가의 못 박힘을 집행하게 된다. 이때 이 못 박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이루어진 주관적인 체험이 된다. 이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죽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과 그 요소가 우리를 통과할 때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피의 두 가지 용도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몸의 대적인 병균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 안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를 때, 죽이는 작용에 의해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죽이며, 또한 동시에 영의 필요를 공급한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이 빛을 보았으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죽음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차츰 체험 안에서 우리는 갈수록 분명해졌다. 최근에 우리는 앤드루 머리(Andrew Murray) 형제도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죽이는 능력이 있고 죽음의 요소가 있으며 죽음의 효능이 있다고 말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위를 얻으시자마자,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신다. 이렇게 죽이는 것이 바로 파쇄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심으로 우리 밖에서 성령의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안팎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환경은 우리 밖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파쇄를 받아들일 마음만 있다면, 즉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협력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파쇄하는 일을 수행하신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우리의 영이 죽이는 일을 수행하시는 성령께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환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외적인 환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협력하여 일하며, 이 두 요인 사이에는 제삼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영은 우리 안에 계시고, 환경은 우리 밖에 있으며,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 곧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자아는 파쇄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낼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고 우리가 파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께 유용하게 되는 길, 104-107쪽)*